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34호
11월 9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신재영 목사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월) 오후 1시 총회 본부에서 열려 국가와 교회를 위해 헌 마음으로 기도한 후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인천지방회장 김경근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히 4: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교회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고, “교회에 주어진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강조한 뒤 “성도들이 성경적인 역사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목사는 또, 진실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를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교단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는 2019 전국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 개최, 부흥사회 하계수련회, 2019년 전국영양교육 추계수련회 개최, 제68차 총회 제2회



신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연교관련수령
인종재 목사
직전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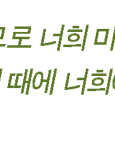
폐회기도
유봉수 목사
증경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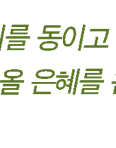
개회기도
임종달 목사
증경총회장



축도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사회
이경진 목사
총무



대표기도
김경근 목사
인천지방회장

고시위원회의(전국 각 지방회 별 명단발표), 아시아태평양 신학대학원(APTS) 이사회 및 인원의 참석, 한국교회 기도의 날 10월 3일(목) 서울시청 앞 기도회 참석,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원 교육, 제9차 전국사모 단합대회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견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 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 휴직 청원,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은퇴 보고 등

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인터넷에 대한 연구보고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문제가 되는 신학사상이나 선교방법 등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며 바른 선교관점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고쳐졌다는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여서 인터넷의 문제점이 완전히 시정되었다는 신뢰를 갖기 전까지는 참여자제, 참여금지를 권면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WCC 반대운동 6주년 성회

“종교다원주의 WCC 반대...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의 발판”

WCC·WDA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 사무총장 고정양 목사는 지난 10월 28일(토) 오후 1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WCC 반대운동 6주년 성회’를 개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흐릿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WCC는 종교다원주의로, 절대 그 사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WCC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분례의 심각성을 깨닫고 차별금지법 저지에 교회와 일치단결하여,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린 WCC

제10차 부신총회를 규탄하며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보수 세력이 모여 출범한 WCC반대운동연대는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WCC 반대운동 6주년 성회를 개최하며 “시대가 지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WCC를 규탄하는 정신을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의의 용사가 되고, 성령을 지키는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성회는 1부 찬양 및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리아터전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 변명탁 목사(준비위원장)의 인도로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어 2부 예배는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의 인도로 삼산노회장 정운주 목사의 대표기도, 한소망 사모의 특송, 애장 합동 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목사는 골 2:6-10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해서 나팔을 불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신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원수 마귀가 가리지를 넣어 혼동시키기 때문이며 우리의 통치자는 성령 하나님이고 통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뿐이므로 오늘 본문인 성경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나가자”고 역설했다.

한국장로교신학회장 김남식 박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3부 WCC 반대운동 6주년 성회는 송춘길 목사의 취지문 발표, 기독교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의 격려사, 애장 합동 김중주 목사의 격려사, 대한신학대학원 석좌교수 김향주 박사의 한국교회문제비평, 최하은 목사(고리십산총회장)와 강주성 목사(대외협력위원장)의 성명서 발표, 애장 합동 중부노회장 김용재 목사의 결의문 낭독, 이은진 목사의 특별기도인도, 김향주 박사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WCC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 사무총장 고정양 목사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흐릿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WCC는 종교다원주의로, 절대 그 사상을 용납해



‘너희 허리를 동이라’



조용목 목사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벧전 1:13)

옛날 유대인들은 머리 부분과 양팔 부분에 구멍이 뚫린 지루 모양의 통이 넓고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거나 답을질이나 전부를 때처럼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허리를 피로 동여매었습니다. 이슬라엘 자손들이 430년의 한 맺힌 애굽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첫 유월절 밤, 그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어린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띠를 단단히 잡아매었습니다. 출발 명령이 내려면 곧장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따라”는 말씀이 신앙경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성도들이 마땅히 싸워야 하는 싸움의 성격과 영적 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성도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허리띠를 따라”는 명령입니다. 허리띠는 몸을 결박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몸을 자유롭게 하고 힘 있게 활동하도록 하여줍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따라라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따라라”는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허리에 동이듯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으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화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겸손한 자세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셋째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였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경주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치르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이란 자제하고 자중하는 것,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근신하는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지극히 아름답고 찬란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결부하여 계획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를 힘쓰는 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은혜를 항상 기대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참석자들은 WCC 반대운동 6주년 성회에서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숨어있는 임꾼들이 사탄의 협박과 위협에 무너지지 않고 힘을 얻도록,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포토뉴스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0월 29일(화) 강원함도사단을 방문하여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장병을 위로 격려했다.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는 사단장과 장병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단장을 함도사단을 위해, 장병들의 건강과 임무수행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군선교위원회는 위문품으로 초코파이와 방죽트 등을 기증하고 돌아왔다.

한교연 임원회, 예정 성장총회 회원가입

가난한 이웃돕기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 요청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0월 24일(목) 한교연 대표회장실에서 제8-7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한 교단에 대해 심의하는 한편 사목집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협조하되 교단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한 지난 임원회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원회는 제9회 총회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일부 법규 자구를 수정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장총회(총회장 김학모 목사)에 대한 가입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회원 가입을 의결했다. 성장총회는 오는 12월 3일(화) 개최될 제9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 후 정식 회원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10월 3, 9일 열린 시국



집회와 25일 개최되는 집회에 참여하는 문체가 거론됐으나 지난 8-6차 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사안에 따라 협력하되 참여 여부는 회원교단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오는 11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 서부역 접충은 친구

들에서 2019 사랑의 김장담그기&나눔기행사가 진행된다고 보고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요청했다. 한교연이 매년 전개해 온 사랑의김장담그기 행사는 올해는 배추김치 6,000kg을 담가 노숙인, 쪽방촌 독거노인, 탈북민, 미혼모자,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전달하게 된다.

한장총, 회장선출 위한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1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중현 목사) 회의를 지난 10월 18일(금) 열고 제37회기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 및 공정선거 방안을 결의했다.

이날부터 한장총 홈페이지(cpkckr) 공지사항, 회원교단 총회로 공문으로 공고하기로 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11월 6일(수)부터 13일(수)까지 8일간으로, 11월 14일(목) 2차 선거관리위원회회의를 통해 후보자 자격심의 후 후보자를 공고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회원교단의 뜻을 반영하여 후보자가 관련자의 집회 초청, 후보자 담합을 금지하고, 유선, SMS를 통한 정책설명은 허용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인 유중현 목사는 “한장총이 교계에서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이어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회원교단들이 이런 점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81년 장로교연합 및 정제성 회복을 위하여 연합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오는 11월 26일 제37회 정기총회에서 현 상임회장을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상임회장을 선거하며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아신대, 제9차 ACTS 신학포럼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 주제로

제9차 ACTS 신학포럼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관 아래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4일(월) 양행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ACTS 신학포럼은 신학 공관운동의 일환으로써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며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세미나이다.

ACTS 신학연구소장 하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은 한상화 박사(조진신학)의 ‘한국 신학교육 개혁의 사명과 방향성에 관하여·학제개혁 제안과 커리큘럼 개혁의 사례’ 및 이숙경 박사(기독교교육학)의 ‘ACTS 신학교육에 대한 제고’였다.

한상화 교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신학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신학교육 개혁 시도와 연구들이 교육 및 한

국교회의 현재적 위기를 바꾸는 실질적 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향후 신학교육 개혁의 과제는 교육자 개인의 자성과 회개가 절실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가 요청하는 목회 지도자상을 위해선 적절한 학제와 커리큘럼 개혁, 이를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환류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교수의 수준 높은 성화적 삶, 교수진 상호간의 비전 나눔, 학교 운영자의 재정 지원 등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경 교수는 ACTS 신학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성적 평가와 발전적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성서공회, 토고·탄자니아에 성경기증

김천제일교회 후원으로 불어·스와힐리어로 제작

대한성서공회(대표회장)는 지난 10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김천제일교회(담임 조병우 목사)의 후원으로 토고에 ‘불어 성경’ 5,580부와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15,173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토고의 전체 인구 750만여 명 중 25세 미만의 청소년층은 60%로, 그 가운데 14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 47%가 아동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이 청소년들은 건설현장 인부나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사줄 수 없어서 청소년들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이에 토고성서공회는 학생들을 위한 성경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들에 성경을 전하여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탄자니아 성서공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서기증과 소수 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 등의 성서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서 김천제일교회의 조병우 목사는 ‘말씀이 현장이다(눅 24:3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 은혜와

말씀이 우리가 누린 것처럼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증거했다.

공회 회장인 총무는 인사말을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 특히 토고와 탄자니아는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싶어 하고, 읽고 싶어 하지만 충분히 성경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한국교회의 후원을 당부했다.



FIM 창립23주년 기념예배 및 이사 세미나 개최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FIM선교회(이사장 천환 목사, 대표 유해석 선교사)가 창립 23주년 기념예배 및 이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1일(월) 서울 CTS기독교TV 베라극장에서 120여 명의 선교회 이사와 선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드린 1부 예배는 이사노태진 목사(영동제일교회) 사회로 김용석 목사(서울반석교회)의 기도 후 김성봉 목사(성수시온교회)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갈 1: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철 목사(성경대 이사장, 대한교회)의 봉헌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한 후 신임이사 위촉 및 선교사 파송 순서가 이어졌다.

이사장 천환 목사는 △순유홍 목사(튼튼한교회) △김준성 목사(대학원교회) △유병선 목사(문배원교회) △김기진 목사(유원동교회) △서전석 목사(새생명교회) △박효



진 목사(새소망교회) △이시내 권사(성문교회) 등을 신임이사로 위촉했다.

또 이동규·홍기출(인도네시아), 정명남·권정희(멕시코) 외 중동 지역 1가정에 대한 선교사 파송장을 수여했으며 3명의 FIM소속 선교사의 선교보고가 이어졌다. 그중 사리아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사역하는 P선교사는 창의적 선교를 위해 물리치료를 배

워 현지 상류층들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이 흘러갈 통로를 열고 있으며 물리치료센터건립을 위해 기도요청을 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김성봉 목사(성수시온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적대적 변증’, 박상봉 교수(합신대)가 ‘비블리언더와 이슬람’, 유해석 선교사가 ‘유럽의 이슬람 인구성장’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독립교회 연합, 제40회 목사 안수식

국내·외 총 152명 목회자 사명 부여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갑)는 지난 10월 21일(월) 경기도 분당 헬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에서 제40회 목사 안수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안수받은 이들은 국내 32개, 해외

20여 개 신학대학원을 수속한 152명이다.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는 “목사가 되는 일은 인간의 열정이나 소원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과

사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교적 안목을 갖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과 담대함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예배는 한재윤 목사의 사회로 이정숙 목사(헬볼트리니티 직전 총장)의 기도, 이팔재 목사(갈보리교회 원로)의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이용주 목사(갈보리교회)와 브라이언 박 목사(CTS폴링당 진행자), 선종철 목사(하나비전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성과 부흥을 위해, 카이갑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콥트교회 천년이상 소외와 박해 견뎌

현속 폴리 대표, “콥트교회 순교의 자세 우리도 배워야”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대표 현속 폴리)은 지난 10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북구 정릉 소재 동시무실에서 중동종교 전문가 데이비드 피넬트 박사를 초빙해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의 현재 처한 상황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피넬트 박사는 “콥트교회는

천 년 이상 소외와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그 콥트교회 신자 몇 명이 사람들 기억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고 순교자 반열에 올랐습니다.”라며, “이것이 무슬림이 다수인 이집트 사회에서 지배당하면서도 콥트 기독교인들이 천년 넘게 견뎌낸 비결입니다.”고 말했다.

현속 폴리 대표는 “콥트 기독교와 개신교

는 신앙적인 확신이나 실천면에서 아주 닮아 있다. 하지만 목회경력이 풍부한 한국의 목사님들도 기독교인의 삶에서 고난과 인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장 평범한 콥트 기독교인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콥트 기독교인들의 순교에 대해 지난 2015년 19세에 의해 참수당한 예를 들었다.

“그들 중에 신학을 배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기독교인자도,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일지리를 찾아 나선 이주 노동자들로서 평범한 콥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죽을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모든 콥트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배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 추계수양회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정영진 목사)는 지난 10월 21일(월)~23일(수) 2박 3일간 제주도에 서 추계수양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의 쉼을 얻었다. 첫날인 10월 21일 오후 5시 비행기로 김 해를 출발하여 제주공항으로 향한 회원들은 공항에 마중을 나온 제주한마음교회 김건수 목사의 환영을 받으며 저녁식사를 하고, 한 마음교회에서 지방회장 정영진 목사의 인도

로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제주한마음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부산동지방회에 병환중인 목사(사모)들의 치유를 위 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튿날, 김건수 목사의 안내로 제주도 여러 곳을 둘러보며 가을의 풍경을 만끽하였고 새미 은총의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조각상을 둘러보며 은혜를 나누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는 다함께 뜨겁게 기도하였다. 오후에는 서커스공연과 새미역새를 동산에 둘러보며 제주도의 맛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사진에 담으며 2박 3일의 아쉬운 일정을 뒤로하고, 마지막 날 아침 비행기를 통해 부산으로 돌아갔다.



2019년 제10차 조찬기도회 개최, 나라의 안보 위해 하나님께 기도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 등용 목사)는 2019년도 제10차 조찬기도회를 지난 10월 28일 오전 7시 아산중앙장로교

회(담임 임용석 목사)에서 가졌다.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천민교회)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온양은혜교회)

리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회에 함께 하는 목회자들을 환영하며, 혼란한 시국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쓰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부회장 김병완 목사(예배중앙침례교

회)의 대표기도 후 본회 고분 강상철 목사(시온감리교회원로)가 히 11:23-32 말씀을 본론으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세상이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였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세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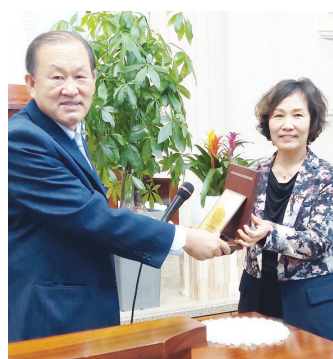
설교 후 고분 김소윤 감독(온양온전감리교회 원로)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2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아산중앙장로교회)의 사회로 먼저 '민족복음화와 아가편을 위하여' 고분 임기석 목사(예배감리교회 원로)가, '아기연 부흥을 위하여' 지도위원 이광로 목사(아산중앙침례교회)가, '아산시 성사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가, '정령등정적과 차



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회계 김이래 목사(새원교회)가, '아산시지도자들을 위하여' 공동회장 정훈화 목사(하늘비전침례교회)가 기도하였다.

3부 보고회와 공지 시간에는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의 국정보고에 이어 기독교연합회가 11월 14일 갖는 정기총회에 대해 광고하였고, 온양온전역광장 성탄트리 설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병행사업으로 불우이

웃돕기를 위하여 삼미(10kg 1000포)를 모으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본회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아산성결교회)가 대표로 있는 아산복지재단 산하 아산종합복지관 구선희 관장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기에 본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가 선교공로축하패를 증정하고 격려하며 회원들과 함께 축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점식 목사)는 지난 10월 29일(목) 오전 11시 울산시 남구 대학로33번길 8에 위치한 순복음늘푸른교회(담임 권점식 목사)에서 일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성기찬 목사(광여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신홍섭 목사(한말의밀암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의 계 1:9-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지'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재무 권택선 목사(순복음하은교회)의 봉헌 기도과 사회자의 광고 후 증경회장



오경덕 목사(순복음한마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일례회는 권점식 목사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교단과 지방회 보고사항

을 전달하고, 순복음늘푸른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광양순복음교회 장로고시 거행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 광양순복음교회(담임 유윤근 목사)는 지난 10월 20일(주일) 오후 5시 동교회 예배당에서 장로로 피택 된 이경규, 임성택 안수집사를 대상으로 장로고시를 거행하였다.

고시위원장 김갑진 목사는 장로고시 합격 증서를 전달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충성스런 장로가 되어 담임목사에게 잘 협력하여 광양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바지 해줄 것"을 당부하고 축복하였다.

광양순복음교회 장로장립 및 서리집사



임명예배는 11월 17일(주일) 오후 5시에 동 교회 예배당에서 드릴 예정이다.

산은길교회 창립,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강남지방회

강남지방회(회장 정윤기 목사)는 지난 10월 22일(목)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세워진 산은길교회(담임 권미경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성호 목사(둘레교회)의 사회, 재무 신영희 목사(부활순복음교회)의 기도, 총회목대원 원우들의 특송, 지방회장 정윤기 목사(쌍명대나눔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 목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창립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서 지방회장 정윤기 목사가 창립 및 담임목사 취임사를 공표하고, 박진철 목사(주흥교회)의 축사와 우성현 목사(직전회장 은혜로교회)의 권면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우성현 목사는 권면을 통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서 권미경 전도사의 취임인사 및 광고와 증경회장 김종열 목사(잠사람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담임 권미경 전도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주의 길을 달려가겠다 앞으로 교회가 잘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반석샘물교회 창립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1월 4일(월) 낮 12시,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 25에 위치한 반석샘물교회(담임 배길선 전도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서성영 목사의 찬송인도에서 이어 총무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박

흥열 목사의 기도, 재무 정세창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 사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신 목사는 시 84:1 말씀을 본론으로 '사랑스런 주의 장막'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장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지랑하고 나타낼 것은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편기

자의 감동적인 고백처럼,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졌기에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전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오산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회계 표한자 목사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창립 및 취임선포·임명장 수여 후,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총회 재무) 한순남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전 부산신학교회) 고영관 목사의 권면, 배길선 전도사(반석샘물교회)의 인사와 광고가 있었다.

배 전도사는 "원근각지에서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열심을 다해 복음전파에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였다.

찬송 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반석샘물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풍성한 오찬으로 감사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생명의 말씀 ■

지금은 참된 믿음이 필요할 때

단 3:12-18



남 윤 국 목사

·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대표회장
· 불꽃교회 담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 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 역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사명 감당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엇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참믿음일까요?

첫째, 참믿음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여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았습니

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금으로 우상을 세워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왕의 말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 속에 던져진다면

형벌도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면 왕의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하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말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도 길이라는 다원주의는 거짓된 것입니다.

둘째, 참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자 세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멸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때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앞을 막을 때 믿음 없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유명한 설교가 스펔전 목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셋째, 참믿음이란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 영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러자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칠 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몸은 물론 옷과 머리털까지도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세히 보니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그 한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은 조건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참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묵숨 버쳐 신앙생활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중동선교회 이사장에 조남흥 목사



무슬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창립된 중동선교회는 지난 10월 26일 (토) 저녁 서울 양재동 IC센터에서 창립

25주년 감사예배와 2대 이사장 조남흥 선교제일교회 목사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조목사는 취임사를 통해서 “중동선교를 위한 300명 기도 용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욕교회 신임회장 양민석 목사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5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1일(월) 오전 10시 (현지시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분석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비교회)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평신도부회장은 전 교협 이사장이었던 손성대 장로가 투표과정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직원 간담회



서울신대학교 (총장 황덕형 박사)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총장과 행정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지난 10월 11일 (금)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황덕형 총장이 9월 취임 후 신임 총장으로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황총장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사람대총장협, 지역 분과협의회



한국사람대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 분과협의회 (회장 이종서 대전대총장)가 지난 11월 1일 (금) 오전 한남대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사람대학 총장 및 부총장 16명이 참석해 안건을 논의하고, 한남대 이덕훈 총장의 안내로 디자인 팩토리를 둘러보며 캠퍼스 투어를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잘못된 KBS의 교(基督教)파라치 행위, 바보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최근 공영방송 KBS는 한국기독교를 파파라치(Paparazzi-파리처럼 왕궁거리며 달려드는 별레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탈리아 어에서 유래된 말로, 연예인 같은 인사들의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찍고 폭로하는 사람들을 말함)하기 위해 애를 쓴다.

KBS가 기독교와 관련하여 보도한 것을 보면, 지난 21일에는 한국의 대형교회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은퇴한 목회자가 해당 교회에서 생활비, 주택,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평생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면, 교회법에 따라서 예우하는 것을 공영방송이 사비 절입은 아닌 것이다.

KBS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대형교회로 알려져 유명해진..’으로 소개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

서, 10월 23일과 21일 두 차례 보도한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10년 전 서초구청에서 모 교회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월권행위’라는 판결에 대하여, 10월 24일, 23일 4차례, 18일 4차례, 17일 2차례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18일 보도에서는 ‘서울 서초동의 대형종교시설 000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라는 아나운서 멘트를 사용하여, 교회 건물을 허무는 것을 가정사실화하여 선동하고 있다.

또 17일 보도에서는 ‘애초부터 무리한 허가, 정/관계 로비/외압 의혹 눈덩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교회 건축을 권력 기관에 로비를 통해 지은 것처럼 보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KBS는 21일 종교인과 세와 관련하여 보도하고, 10월 10일에는 강동구의 모 교회 관련 보도, 9월 27일에도 역시 같은 교회 관련 보도 2건, 26일에도 같은 사건 2건 등을 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가 왜 이다지도 교파라치적인 보도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가?

지난 22일 KBS공영노조의 성명에 의하면, ‘헌론이 교회에 부정적인 뉴스를 부쩍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문재인 정권을 집중비판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공영방송인 KBS가 이런 시각과 정권을 대신한 복수심으로 교파라치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스스로 합정을 파는 행태이다. 정권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언론을 인정할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다.

교회 안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수성도 있고, 일반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교회가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KBS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절제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까발리자’는 식으로 마구 보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KBS가 원하는 ‘교회 허물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KBS는, 신뢰가 안 가는 언론으로 낙인찍혔다. 과연 한국교회 허물기가 목표인 양 보도하는 KBS를 국민들은 얼마나 인정하겠는가?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할 역할은 당연히 공영방송인 KBS에 있다.

최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 끼지라!’는 외침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이 편향되었다면 이보다 중요한 문제

가 어디 있겠는가?

또 지난해 모든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소위 ‘계엄 문건’ 사건을 어느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KBS가 9시 메인뉴스에서 연일 보도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국민들을 진영의 수렁에 빠지도록 조장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병폐는 공영방송인 KBS에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KBS가 과연 공정한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문제점은 간파하지 못하면서, 특정 종교를 편취하고, 허물려는 시도가 정당한가?

여기에 대하여 KBS는 답을 해야 한다. KBS에 한마디 꼭 하고 싶다면 ‘바보야, 교회보다 네가 문제야’ 제발 공영방송인 KBS는 ‘외눈박이’가 되지 말고 사방을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9.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9. 9. 0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9. 9. 26(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9. 8. 30(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0. 2. 10(월)~1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목양시사

원수와 용서의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의 현실

기독교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마 5:44, 눅 6:35 롬 12:19)는 말씀과 용서하라(렘 4:32 골 3:13)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분별없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기독교인들끼리 나누고 싸우게 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원수가 생긴 원인은 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결과이다. (롬 5:12, 삼하 12:9-14)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받기 전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롬 5:10, 골 1:21), 지금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녀가 되었다(엡 5:8, 벧전 2:10, 25)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다니므로(레 12:9, 20:10)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다.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와 공적인 원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원수는 대부분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용서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 큰 복을 받고(마 6:14 막 11:25),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다(마 6:15, 18:28-35).

공적인 원수는 교회, 국가, 크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말살하려는 존재를 공적인 원수라고 할 수 있다(레 3:9).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나라의 공동체인 기독교인의 공적원수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대상들이다(벧후 2:4-5).

여기서 공벌과 공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엄중하게 다루셔서 공의를 행할 때 죄를 속하게 되고 공벌을 무시할 때 심판이 오는 것이다(단 4:27, 렘 5:1, 암 5:7-24, 6:12-14).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사탄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목사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원수의 정체를 밝히고(마 3:7 마 12:34 요 8:44), 헤롯왕을 여우라고 말하며 원수라는 것을 명시하였다(눅 13:32).

그리고 원수의 하는 일을 제어하라고 능력을 주셨고(눅 10:19)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것이다(약 4:7). 에스겔에게는 분명히 악인에게 경고해야 하고 경고해서 돌아오면 다행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에스겔에게 그 핏 값을 찾겠다고 하였다(렘 33:1-22).

죄 용서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용서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기에(골 1:14, 요일 1:7, 5:16)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으라고 하였고(요 20:22, 23)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이웃에게 배상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제물을 드려 속죄하도록 하였다(레 6:2-7).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행위

는 일방적이며 사탄에 속지 않도록 용서하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므로(고후 2:10, 11) 서로 용서하라고 하였다(렘 4:32). 더욱이 공적인 죄는 개인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일 공적인 죄들을 자기 멋대로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불법이 되고 여호와의 증인이 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짐중거부를 고집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반대로 개인적인 원수는 용서를 쉽게 못 해도 공적인 원수는 아주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이나 희생이 요구되지 않고 공동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분노 감작 안 하고 오히려 더 강행군하는 원수를 막아내지 않고 용서하라고 한다면 똑같이 함께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막 15:6-15, 롬 1:32, 렘 40:13-41:3).

참된 원수사랑은 불의를 덮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일깨워주어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다. 악한 일을 못하도록 원수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살리는 길이다. 만일 불의를 덮고 옹호한다면 가장 악한 범죄이다.

공의에서는 합당한 법을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공익과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2015.7.1부터 시행된 법률 제2698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성경적인 NAP법을 자신들 계획에 맞추어 독소조항을 만들고 2018. 8.7에 공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경기도의회에서 2019.7.16에 날치기 통과로 바꾸었다. 그리고 뉴질랜드대사에 동성애자를 초청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화를 추진하며 나라를 총체적으로 망하게 하는 자들을 옹호하며 사랑한다면 잘못된 망상이다.

이제 도적을 도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는 것이 의인의 사명이다.

그동안 깨어있지 못해 부지하고, 속고, 설마 하며 안일하게,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며 속수무책으로 아무 소리 못 하고 잠잠하며 지내왔기에 세력을 키워주고 독바섯처럼 더욱 기세를 부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기가 역사적인 과정으로 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한 과도적 역할을 위한 필요악이기에 느긋하게 대처하며 때를 기다리자는 이론에 동조할 상황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수의 출현 원인은 인간 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결과로써, 그동안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크게 세속화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신속한 자세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나라의 국운을 회복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청와대 앞, 광화문, 이승만 광장, 시청 앞 등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처럼 되고 싶어 광분하는 권력욕에 가득한 집단에게 최선을 다해 경고하고 저지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출하여 주시라는 뜻이 있는 행동의 기도이며 합성이다. 기독교인은 폭력이나 무력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무지와 교만과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성찰하며 의인의 의무에 성심을 다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일하시기 때문이다(삼상 7:5-14, 느 8:1-12, 출 2:23-25).

거국적인 애국운동에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국민들과 한 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기독교는 올바른 사회와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임을 잘 알리고 그동안 기독교에 대한 나쁜 편견과 오해를 깨트리 청산할 수 있도록 하며 복음을 잘 전하여 백성들을 예수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벌써 이단들이 먼저 활개를 치며 활동을 하고 있음을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권자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 국회에서 거론하려는 1. 패스트트랙 2. 공수처법 3. 선거법개정은 도둑에게 총을 쥐어주면 강도가 되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무서운 법이다.

선거법개정이 통과된다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으며, 시진핑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법이 우리나라도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고,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국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독주하는 이들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 그들이 세우려는 모든 악법들을 계속해서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하며 NAP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경기도 의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아무리 수십 년이 걸려 이론 공든 탑도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기독교인인 중국 장개석 총통은 모택동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앞두고 있을 때 항복을 완전하게 받지 않고 인도주의라는 미명에 속아서 휴전했다가 그들에게 제기할 기회를 주어 역공당해 공산화가 되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원수들은 용서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서 되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딤후 4:2) 정신 차려 악인들을 경고하고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온 국민과 힘을 합쳐 모일 때마다 강하게 일어나서 나라와 기독교의 공적인 원수세력을 하루속히 당장 물리치게 하여 나라의 안정과 예수한국으로 복음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2019. 10. 31.

김포에서 두천사

목양 패러다임

임석순 목사 // 한국중앙교회 담임

한국교회 미래에 적용할
실제적 목회 패러다임②

많은 신학적 지식보다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3)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3)

우리는 반드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프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이,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프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 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

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것이다.” (마 25:31-46)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교의 현상이든 봉사의 현상이든 섬기는 자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음세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한국 교회와 미래세대가 맞이할 미래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3)

가나안의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과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 때 필요한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맹세할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시대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물질로 묵화하는 패러다임, 세상의 힘으로 선교하는 패러다임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묵화하고 선교하는 패러다임화되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습니다. (막 9:14)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합니다.

5)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 6:14)

가나안 세대들은 반드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따르는 순종을 보여줄 때 이 가나안 세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보이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나가는 글

지금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매일 회개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이며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을 키워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화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낱말을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화사 간
p235 / 값 15,000원

교단공과 신청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중고등부학생용(교사용은 별도로 발간 안함) : 5,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④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중고등부 공과교재

- ① 컬러 삽화가 삽입되어 이해를 도와줌
- ② 주제별로 구성되어 신앙관 정립에 도움이 됨
- ③ 사회적, 종교적 이슈가 삽입되어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됨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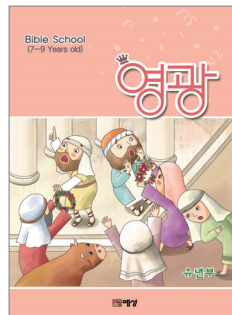
- ① Fax: 02)2677-5181
- ② e-mail: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④ 신청마감: 2019년 12월 3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제1학차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혈몬산 기도원 부흥회



김남순 목사
혈몬산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한 윈터이자 청소년 전도에 앞장서는 혈몬산 기도원(원장 김남순 목사)이 부흥사회(회장 김기진 목사) 강사진을 초청하여 지난 10월 28일(월)~31일(목) 부흥회를 갖고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부흥회는 조은혜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강사로는 김기진 목사, 최정식 목사, 김건수 목사, 정석현 목사, 오세준 목사, 성기전 목사, 조길수 목사, 정환부 목사 등이 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축원하였으며, 많은 성도들이 은혜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
세전순복음장로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음교회

부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상임위원



정석현 목사
평안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장로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장로교회



우광덕 목사
해인교회



정환부 목사
순복음장로교회



2020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 5일(목) 3박 4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9년 11월 29일(금) 17:00
- 문 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관환 목사

연합회장



손 혁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안흥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시장), 김항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실무회장

박관환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연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서기

정진화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재무

곽인숙 목사,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곽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정해곤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글로벌선진중학교 스포츠에서도 두각

2019 충청북도교육감배 및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축구대회 우승!

글로벌선진중학교 중학교 축구부(이하 음성글로벌선진중 감독 김성일)가 2019 충청북도교육감배 및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며 다시 한번 피란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단양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에는 음성글로벌선진중을 비롯하여 신명중, 제천FC, 청남FCU15, FC청주 등 총 5개팀이 참가하였다.

음성글로벌선진중은 10월 26일 청남FCU15와의 결승전에서 송태환이 후반 10분 개인드리블을 통해 질주하여 첫 골을 기록하였고 후반 16분 우지원의 어시스트를 받은 도주성이 추가골을 넣어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청남FCU15도 분발하여 후반 종료 1분전 1골을 득점했지만 음성글로벌선진중의 수비벽을 뚫지 못하며 참패를喫하였다.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달성하여 축구 관계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던 음성글로벌선진중은 김성일 감독, 최승기 코치, 안재섭 코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독, 높은 훈련을 통해 2019 충청북도교육감배 및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서 글로벌선진중학교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최우수선수는 오민서, 최다득점상은 도주성, 최우수골키퍼상은 심제만이 수상했고 최우수지도자상은 김성일 감독이 수상하였다.

이에 앞서 음성글로벌선진중은 2019 전국 주말리그 축구대회의 충북/대전권 우승을 확정지은바 있으며 패어플레이상은 우지원, 최우수선수상은 이영현, 최우수골키퍼상은 한준성, 최우수지도자상은 김성일 감독이 수상하였다.

공부하는 스포츠 엘리트 선수를 지향하는 글로벌

선중학교의 김성일 감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선진중 축구부가 우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와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는 11월 8일부터 전국 64개팀이 모여 경남 창원에서 치러지는 2019년 중등축구리그 골지람 페스티벌 왕중왕전에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홈페이지 <https://www.gvcs-es.org>, 문의 043)871-7050-2(입학상담실)

신앙시

동운 정경화

기도하는 자

갯세마네 동산 어느 곳
찬이슬 맞으며 온 몸으로 기도하는 주님이시여
당신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가야할 곳, 아시는 당신이었기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하셨네
당신은 홀로 피어린 땀 흘리시며 기도하는데
나와 너, 어찌하여 잠만 잤을까.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들었네
말씀은 흰 비둘기가 되어 내려 앉고
초라한 죄인이 벌판에 서 있는 것 보았지.
그리고 주님의 행복한 포로가 되었다네.

이제 저희 안에 주님의 그 모습 닮아
삶 속에 생수의 강 흐르도록
낮아진 마음
성령의 불길 붙도록
다락방에 모여 울며 기도합니다.

내일은
복된 땅 칠채선 넘어 십자가의 복음 전해지도록
아시아의 외로운 이들에게...
아프리카의 소외받는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 증거하도록
기드온의 용사들 준비케 하소서.
그리고 보내소서.
오늘의 간절한 기도 응답주소서.
동녘 하늘이 떠오를 때까지
애타는 마음
눈가에 눈물이 젖도록 간구합니다.

- 막 14:34 인용 -

동운 정경화

- 경북 김천 출생
- Joy 선교회 이사 역임
- 한국 크리스천 문학 회원
- 문학의 강 회원

신간 안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기도문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간구하는 기도는 쉽게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저자의 고백이 위로가 될 것이다. 그간 다수의 기도 책을 지은 저자 또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려니 처음엔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적절한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

나님께 올려야 영광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감사와 찬양의 언어는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자신의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간 써온 기도문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를 쓰면서 제일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

저자 : 김민정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138*200)mm 394p | 판매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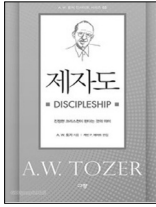
항상 기뻐하라 역경과 비천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는 비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경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삶의 영역 안에도 장애와 난관, 원망과 슬픔이라는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장벽을 얹고 심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상에 존재하는 역경과 비천,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에서 그 비결을 찾고자 한다. 어떤 장벽에도 심령의 기쁨과 평정을 온전히 누렸던 바울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자. 저자는 종신대 대학원(Th.M.)에서 신학을 연마하였고, Temple 신학교(M.R.E. 기독교 교육학 박사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연구하였다.

저자 : 김경섭 | 출판사 : 도서출판 프라임 | (152*225)mm 248p | 판매가 : 13,000원

제자도 DISCIPLESHIP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의 의미 (DISCIPLESHIP)



구원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제자도는 무기한 미루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도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순종과 제자도가 구원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 즉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행실을 떠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저자/역자 : A. W. 토저/유정희 | 출판사 : 규장 | (135*195)mm 192p | 판매가 : 10,000원

행복의 또 다른 방정식 이 고비만 잘 넘길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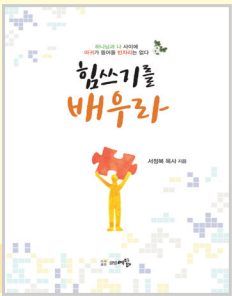


힘든 시간이 인생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불확실한 시대 황의일 목사가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깊이 낙심하기도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빙그르르 웃을 짓게 되는 걸 보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우연동 광문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여러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던 황의일 목사는 수필집 《행복의 또 다른 방정식》을 통해 그동안 삶에서 느껴 온 자신의 '행복론'에 대해 말한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공식에는 '예수님'이 들어 있다. 삶에서 어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만나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저자 : 황의일 | 출판사 : 줄은당 | (148*210)mm 264p | 판매가 : 12,000원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가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백석대 학생군사교육단, 육군대학장 서천규 준장 초청 특강 개최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학생군사교육단은 지난 10월 25일(금) 오후 3시, 교내 승리관에서 육군대학장 서천규 준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국가안보와 군인,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후보생들을 만난 서천규 육군대학장은 “36년 이상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외세에 침략 당했던 우리의 역사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또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은 시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늘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백석대학교와 육군대학과의 군학협력 체결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영관급 장교의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교연-미기총, 연합 특별기도회

한·미 교회와 대한민국 자유위해 기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이하 한교연)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민승기 목사·이하 미기총)가 제3차 한국교회 한미연합 특별기도회"를 지난 10월 31일(목)까지 가졌다.

지난 10월 3일(목)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양 기관에 속한 교회들이 △한국교회 본질 회복과 삼합(하합, 연합, 통합)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복음 통일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수호 △국가의 안보·경제·사회·바른 역사관 수호 △한미동맹 유지 및 한일 갈등 해소 △디아스포라 교회의 부흥과 안정 등을 위해 기도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기도회 목적에 대해 "한교연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해 왔다"며 "그러던 중 최근 미기총이 기도회 취지에 공감해 양 기관이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성경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

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전쟁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오늘도 모세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며 "한미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엘리야와 모세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자리 잡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가면 그토록 아끼는 교회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함께 기도하자"고 역설했다.

미주한인 특별기도회 추진위원장인 이재덕 목사는 "한국교회와 함께 미국 전역의 4,500여 개 한인교회는 각 주별로 특별기도회를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싶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입니다. 그동안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방에서, 아파트 각 층마다, 상가에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전도지만 건네는 전도는 저에게는 매우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지 않는 영혼들을 그저 지나칠 뿐....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늘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반복적으로 전도지만 돌리면서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좀 더 이해롭고 현명하게 전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곧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효과적인 전도법'을 검색해보았고,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가 평내순복음교회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에 등록하고 바로 전도 현장으로 나가 말습전도, 능력전도를 보여주는 훈련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첫 주에 박영수 목사가 강의한대로 '아파트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낮의 아파트는 빈 집이 많았고 사람이 있어도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올 뿐, 문을 열고 사람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아도 전수받은 대로 되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가족세트전도 12주 과정동안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참석할 의지를 주시길 기도로 무장하며 결단하고 참여했습니다.

전도과정 5주째에 접어든 어느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전도를 위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영혼이 제가 하는 영접기도를 자신의 목소리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출석한 교회에 개척된 이후 처음으로 만지 않던 영혼이 전도되었습니다. 전도에 앞서 늘 긴장하고 부담스러워하던 연약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제가 동참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교육과정도 열심히 참석하여 박영수 목사처럼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박리미 권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도너패밀리-이식인 함께하는 캠프

“서로의 아픔 보듬고 내일의 희망 발견한 시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 차남규·여승주의 후원으로 한화리조트 양평으로 ‘2019 도너패밀리와 이식인이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를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 까지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가졌다.

생명 나눔의 주인공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들(도너패밀리)과 이식인들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장기기증으로 송고한 사랑을 실천한 도너패밀리와 장기이식을 통해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식인들이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모든 순서는 도너패밀리와 이식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참가자들은 조별로 나눠 모여 장기자랑을 준비했다. 각 조에서 도너패밀리와 이식인들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체와 연대의 감정을 나눴고, 저녁에 진행된 어울림 축제들 통해 서로 준비한



무대를 즐기며 기쁨을 표현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도 준비됐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나며 9명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선물한故 정동운 씨의 사연은 최은준 작가의 손을 통해 샌드아트로 꾸며져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를 이식받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이식인들이 자신의 사연과 이식 이후의 삶을 소개하며 기증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 1994년 신장을 이식받고 25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정종철 씨는 이식인을 대표해 편지를 낭독했다. 정 씨 외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췌장이 식인협회 소속 이식인들은 직접 도너패밀리와 포옹하며 기증인들의 송고한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함께 전했다. 이식인들이 감사를 전한 뒤 도너패밀리를 대표해 장부순 씨(故 이종훈 씨 유기족)가 이식인에게 격려와 당부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화답했다.

하이라이트 데뷔 10주년 기념 1016만 원 후원

기아대책, 멤버들 군복무 중 데뷔일 기념...공식팬클럽 ‘라이트’ 이름으로 기부

그들 하이라이트가 팬들과 함께 뜻깊은 데뷔 10주년을 만들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그들 하이라이트가 데뷔일 10월 16일을 기념해 1,016만 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10월 21일(월) 밝혔다.

하이라이트는 기부자명을 공식 팬클럽 ‘라이트’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아라운드스 관제자는 “팬버 네명 모두 군복무 중에 맞게 되는 데뷔 10주년 기념일

이라 소박하지만 뜻깊게 기념하고 싶었고, 팬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싶다는 멤버들의 뜻이 있었다”며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는 분들을 위해 후원금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소외계층 겨울나기 캠페인 ‘희망온’에 후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희망온은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해 방한용품,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그들

하이라이트와 팬들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및 국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후원을 이어왔다”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 꾸준한 후원으로 스타와 팬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그들 하이라이트는 팬들과 함께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기대 속에 기부한 바 있으며, 멤버 윤두준은 2012년부터 아프리카 잠비아의 학교를 후원해 오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소금물) 가글로 올 겨울 감기를 이기자!!!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혓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낮 12시~5시까지
- 장 소** |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379 (대림동 1116-49)
☎ 02) 845-5095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전원
- 문 의** | 국장 백영자 목사 (010-3638-0120)
- 후원계좌** |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주제
“하나님과 동역하라”
- 고전 3:9 -

♡ 모시는 글

매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 한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려는 12월의 중턱에서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섬기시던 목회사역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므로 주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소원하며,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교역자국 송년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

1부



말씀
고문 정부용 목사



사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기도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

- 사회: 국장 백영자 목사
- 말씀: 고문 정부용 목사
- 기도: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
- 지부장 소개 및 인사

2부 : 조별 및 전체 코이노니아

시간	진행내용	비고
12시~오후1시	점심식사(오시는대로 자유롭게)	2층 교회식당
오후1시~오후3시	송년예배 및 합심기도	대 예배실
오후3시30~오후5시	조별 편성 및 기도제목 나눔	3층 소성전
오후5시	지부별 귀가하며 식사	식사비 제공

● 11:30부터 점심입니다

조 직

임원단



운영부장



예배부장



선교부장



복지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기획부장



행사부장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부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부회 지부장



서울강남지부회 지부장



경기지부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부회 지부장



경기남지부회 지부장



경기북지부회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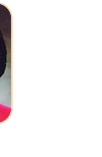
인천지부회 지부장



인천지부회 지부장



인천지부회 지부장



인천지부회 지부장



인천지부회 지부장



인천지부회 지부장



인천지부회 지부장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 줄 우리 모를 때
완벽한 기도의 본 보여 주셨네
갈릴리 호수에서...
벧세다 언덕에서...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친히 보여 주셨네

구하면 받고 뿌리면 거둔다는 것 알려주시고
죽으면 살고 주면 받는다는 것 알려주시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알려주시며
준비하고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주님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들에게...
은혜 잇고 사는 것 나무라잖고
친히 기도하는 법 알려 주셨네
기도 못한다는 말... 할 수 없도록...
주기도문 주신 은혜 감사하여야.

밤이 깊은데 정신이 맑아진다.
성경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마음과 만난다.

홀트아동복지회, 해외아동 초청연수 실시

‘꿈+재미’, 한국은 처음이지?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김병철)의 후원으로 ‘해외아동 초청연수(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지난 10월 15일(토)부터 21일(월)까지 6박 7일간 실시했다. 지난 16일에는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소재)에서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홀트드립센터 아동 9명과 인솔교사 3명의 한국방문 축하를 위한 환영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2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남산타워, 놀이공원, 직업체험 방문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졌다.

특히, 롯데월드의 후원과 한국메르스의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아동들은 신나는 놀이공원 체험을 함께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 팔에서 빈곤가정 아동과 가정을 위해 홀트드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홀트드립센터 아동 중, 출석과 학업성취도, 활동 참여가 우수한 아동을 선발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사설

총체적 난맥상

한·미 양국이 올해도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축소시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자 훈련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양국 관계자는 이달 중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양국 정부 승인을 받은 뒤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폐지라는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정부가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행을 예고한 데 따라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중국·러시아 항공기는 보란 듯이 동·남·서해 상공을 휘젓는 상황에서 한·미 공중훈련 폐지는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핵포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보를 보이지 않는 ‘김정은 눈치 보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7년 훈련 때부터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군사도발이라며 중단을 요구한 북한에게 훈련 중단으로 답했고 올해도 재확인했다. 북한은 올들어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SBM)까지 섞여 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Z)을 2차례, 러시아는 2차례 침범했다. 지난 7월엔 중·러 군용기가 연합해 KADZ를 침범한 데 이어 러

시아조기정보통제기는 독도 영공까지 농락했다.

그런데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왜 “중·러의 KADZ 도발 일상화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때문”이라고 했겠는가. 미국의 공중훈련 중단 동조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따른 동맹이 완실히 작용했을 것이다. 문정부는 북·중·러만이 함께 할 안보 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 정부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지고 심화된 진영논리와 국론분열, 그들만의 카르텔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사회지도층이 누려온 특혜와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보다 시급히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공정이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했던 말을 지켜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이 받은 배신감과 박탈감, 좌절감의 상처를 치유하고 양국단으로 찢어진 나라를 통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이다”(암 54:2).

특정 정치색을 띠고 학생들을 시험하다니?

최근에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데, 한국사 문제에서 학생들이 배우지도 않고, 특정 정치색을 띤 문제가 출제된 것이 밝혀져 우리 사회를 당혹케 하고 있다. 지난 8일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문제에서 SNS상에 떠도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보이라 피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제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지분을 내놓고, 이 글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을 고르라’는 것인데, 예시된 인물은 조국, 이인영, 윤석열, 나경원 등의 정치가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문제는 전교조 출신의 모 교사가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도 아니고, 고3 학생들에게 하등 필요치도 않은 정치적인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거기에 검찰을 정치 검찰로 몰아가는 듯한 인식도 전혀 교육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시험공부를 하고, 특히

고3생들은 곧 있게 될 수능시험 등 초읽기로 바쁜 가운데 있는데, 교사는 검찰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태도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 답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에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로 지난 8월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고, 갈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이런 혼란과 국력 낭비와 우리 사회를 뒤흔트리고 있는 영 논리 싸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 그쳐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지도 못할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자들은 누구보다도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분명한 책임감이 없이, 그들을 다른 목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을 망치는 폐악자(廢惡者)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국가안보와 교회부흥,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종교다원주의·동성애 반대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제34차 정기총회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덕화 목사) 제34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5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에서 열려 북핵으로 인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철통 같은 국가안보를 위해, 이 땅에 파고든 종교다원주의를 몰아내고 이단사이에 교회침투를 막기 위해, 동성애자들이 변화되어 바르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동회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한영 목사(협인이사)의 기도, 권오성 목사(회계)의 성경봉독, 고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출 17:8-13 말씀을 본문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방



심원원장

법'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위기를 전혀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안보경제, 사회적 대립구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고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 나라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고분 조용목 목사

사회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

대표기도 법인이사 이한영 목사

성경봉독 회계 권오성 목사

개회기도 재정정책위원장 이고의 목사

특별기도1 사회정책위원장 권처명 목사

특별기도2 고분 이준원 목사

특별기도3 고분 최상열 목사

헌금기도 감사 구병회 목사



이어서 특별기도로 '국가와 위장자를 위해', '본회와 회원교단을 위해', '세계선교를 위해' 권처명 목사(사회정책위원장)와 이준원 목사(고분), 최상열 목사(고분)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구병회 목사(감사)의 헌금기도 후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안보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과 말세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교단협의회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정체를 지켜 행함으로 이단사교의 교회침투 방지에 공동대처해 왔음을 감사드리고 그동안 적극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전한 뒤 이같은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고분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곧바로 열린

정기총회는 이고의 목사(재정정책위원장)의 개회기도, 의장인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의 주제 하에 회순에 의해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군경 위문, 3.1절 기도회, 통일 교육실시, 6.25 남북 평화통일기도회, 8.15 광복절 기념예배, 이단사이비 교회침투방지 세미나,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들을 신임 원전에 위임기로 결의하고 모든 회의를 마쳤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정덕화 목사(예장 합동보수진리 총회장) 회장단 회원교단 21인 총회장,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 사기 박찬목 목사, 부서기 김동민 목사, 부서기 박영환 목사, 회계 권오성 목사, 부회계 박태영 목사, 부회계 천점수 목사, 감사 이상영 목사, 구병회 목사

세계선교연합회 주관 '2019 선교사 초청대회' 은혜 가운데 열려

조용목 목사의 메시지와 성도들의 환대에 감동, 복음전파에 전심전력 다짐

'2019 선교사 초청대회(MIC, 2019)'가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12일(토)부터 14일(월)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과 안양성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렸다. 이번 선교사 초청대회에는 은혜와진리교회의 해외선교지 가운데 8개 국가의 선교지 선교사들과 캐나다, 호주 선교협력교회의 선교사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선교사들은 IMCR(세계선교와 교회부흥협의회) 총재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을 비롯한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의 권능과 강력한 영적 도전을 받고 세계선교를 위한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졌다. 이와 함께 선교 현장의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간증과 교제 시간을 갖고 서로를 격려했다.

대회 첫 날인 12일(토), 오전에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요원을 방문하여 구원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들의 회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오늘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된대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어서 오후에는 우리 교회의 전통문화와 관광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13일 주일에는 캐나다 챔피언 라이프센터 제리 베너저 목사, 인도 은혜와진리교회 앤 데이빗 목사, 호주 데이비드 웨르나데스 목사, 페루 루벤 클리프 로드리게즈 목사, 말레이시아 존진 목사, 미얀마 아웅밍탕 목사, 필리핀 리카르도 길버트 목사, 네덜란드 박명 목사가 여러 성전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담당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선교사들은 안양성전 트루스빌딩 내 세계선교연합회와 방송통신 선교연합회 및 GNTC-TV 스튜디오 시설 등을 둘러보며 세계선교 관련 기관의 역할과 주요 업무를 견학하고, 카이노스성전에서 공연 중인 은혜와진리교회의 '2019 창작뮤지컬 - 알파와 오메가'를 관람하였다. 이어서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월), 오전에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열린 은혜와진리교회 제7회 구역장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선교사

들이 지구 전통의상을 입고 국기를 들고 성전에 입장하자 구역장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였다. 세미나에서 세계선교연합회의 '그레이트 앤 트루스 미션과이어'가 모든 참가국의 언어로 찬송하여 기쁨을 나누고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어서 아가페성전에서 열린 조용목 목사의 특강 시간에 선교사들은 질의응답과 조용목 목사의 강의를 통해서 신령한 지식을 얻고 크게 고무되었다. 조 목사는 '십자가의 복음'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성경적 복음진리와 선교사의 사명과 비전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격려 축복해 주었다. 만찬 후에 선교사들은 월요기도회에 참석하여 성도들과 함께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해 기도한 후, 대회 관계자 및 봉사자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들은 당회장 조용목 목사 내외분의 사랑과 성도들의 환대에 깊은 감동과 큰 격려를 받았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대회를 주관한 세계선교연합회 임원들과 그레이트 앤 트루스 미션과이어 단원들, 동역봉사자들 비롯한 도우미 청년들, 만나실 봉사를 담당하신 평신도성경대학원생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에도 고마움을 뜻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http://agpgs.aogk.org>

2020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학금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